

##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(출애굽기 20:11)

### <먼저 본문 말씀을 찾아 함께 읽으세요.>

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. 하지만, 지금 시대에서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 아닌, 일주일의 첫째 날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름도 안식일이 아닌 주일(주의 날)이라 부릅니다.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의 의미, 현재의 주일 성수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### 1. 하나님은 안식일을 창조 질서로 정하고, 거룩하게 하셨습니다.

#### 1) 복되게 하사 (God blessed the seventh day): 목적과 명령을 나타냄

(창1:22) “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(God blessed them)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”

(창1:28) “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(God blessed them)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, 땅을 정복하라,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”

※(창2:3)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(God blessed the seventh day)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

#### 2) 안식일 절기가 지켜집니다.

(창4:3) “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”

#### ※ מִמָּוֶל מְאֹדָּהּ (The End of Days)

(출16:23) “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”

(출20:11) “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” (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made it holy)

(사58:13) “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,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”

### 2.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: 안식일은 육적인 일을 멈추고,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참여함으로 우리 영혼의 쉼(안식)을 얻는 날입니다.

(레위기 23:2-4) “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(Holy Convocations)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.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 (Holy Convocation)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

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와 안식일이니라.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와 절기들이니라”

## 1)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

‘여호와와 안식일’ (레23:3), ‘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’ (신5:14), ‘여호와와 성일’ (사58:13).

※성회 (Holy Convocation):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.

이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,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내린 명령은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에 참여하는 것 입니다.

## 2) 안식일은 영적인 안식(휴식)을 위한 날

“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”

(사58:13-14) “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,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,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 입의 말씀이니라”

- ‘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’: 인간적인 쾌락과 즐거움
- 예배와 영적인 휴식에 방해 되는 일: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

## 하나님의 일 vs. 사람의 일

- (막 3:4) “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,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,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”

(마12:1-13)

-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음 (마12:1)
-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음 (마12:3-4)
-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 (마12:10)
-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양을 구함 (마12:11)
- (마12:8) “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”

## 3. 토요일 안식일(Sabbath)이 일요일 주일(Lord's Day)로 바뀐

### 1) 의식 법(Ceremonial Law)의 폐지 (유형, 예표: Type)

-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, 율법을 완성으로 인해, 더이상 의식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.

(갈4:10-11) “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,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하노라”

(골 2:16,17) “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.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”

- 구약에 지키던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휴식을 얻게 하고,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미래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을 예표합니다.

- 안식일의 의미는 여전히 이어지지만, 의식 법처럼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.

(히4:9) “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.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.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”

## 2) 토요일 안식일(Sabbath)에서 일요일 주일(Lord's Day)로 바뀔

-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신 것처럼,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.

- 신약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이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며,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(Sunday)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, 안식일의 의미를 이어갔습니다.

(요20:26) “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...”

(행20:7) “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”

(고전16:1-2) “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.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”

※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(주일 성수)를 한다는 것은:

1)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, 성도 간에 교제 그리고 구제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며, 주님 안에서 즐겁게 지내는 것입니다 (영의 안식).

2)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그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.

☞ 여러분은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?

☞ 예배와 교제를 통한 영의 쉼이 세상에서 6일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십니까?

☞ 여러분은 주일을 성수 하면서,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십니까?